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0월 29일(주일) 제1169호

다음세대 응원단을 찾습니다!



11월 5일까지 '2018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 대상 등록교인, 세례 교인, 신입교사대학 수료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2018 차세대 교사 모집행사가 '다음세대 응원단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오늘(29일)과 다음 주일(11월 5일) 서빙고, 양재, 인천, 도곡교육관에서 실시된다. 현재 차세대 교사는 최소 600명(서빙고 150명, 양재 135명, 도곡 38명, 부천 105명, 수원 56명, 대전 50명, 남양주 41명, 인천 38명, 강동 26명, 평택 18명,

양지 15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장예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에서도 교사를 모집한다. 사랑부 교사는 최소 90명(서빙고 40명, 양재 15명, 강동 15명, 부천 15명, 인천 5명)이 필요하다. 차세대 교사 대상은 다음세대에 건강한 믿음을 전수하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나 세례를 받은 성도이다. 신청방법은

서빙고, 양재, 인천, 도곡교육관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홍보부스에서 접수하면 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11월 중에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한 성도들은 신입교사대학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신입교사대학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8주 동안의 훈련과정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개 및 영역 소개,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등이 실시된다. 신입교사대학 서빙고 목요일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301호에서, 서빙고 토요일은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서빙고 신동아 2층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양재와 도곡교육관은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사랑부: 02-3215-3268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엔젤트리 주인공을 찾아라!

11월 5일까지 사연 접수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는 '엔젤트리'의 계절이 다가왔다. 사회선교부에서 11월 5일까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엔젤트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에게 선물(3-5만원 상당)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공동체, 사역팀, 성도 개인이 알고 있는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작성해서 소속공동체에 접수하면 된다. 사연이 선정되면 11월 말부터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재 온누리교회 엔젤트리 사연접수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문의: 02-3215-3434

40대를 위한 선물 '두 번째 스무 살'

40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이 오는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40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은 우리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네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자리

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가수 별, 뮤지컬배우 이석준, 배우 추상미 부부, 송솔나무, 브라스통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주일통합데스크, 목회지원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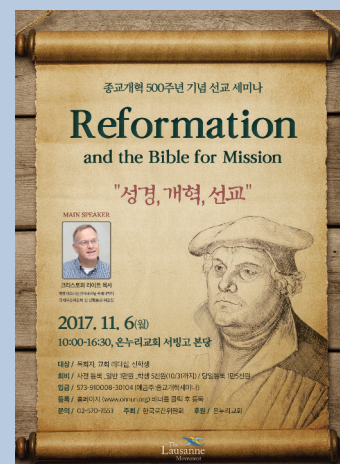
선교세미나 '성경, 개혁, 선교'

11월 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한국로잔위원회가 주최하는 종교 500주년 기념 선교세미나가 11월 6일 개최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르는 이번 선교세미나는 '성경, 개혁, 선교'를 주제로 열린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랜햄파트너십인터내셔널 국제 대표)가 강연한다.

이번 선교세미나는 목회자, 교회 리더십, 신학생이 대상이다. 10월 31일까지 등록하면 회비 1만원(신학생 5천원)이고, 당일등록은 1만 5천원이다.

문의: 02-570-7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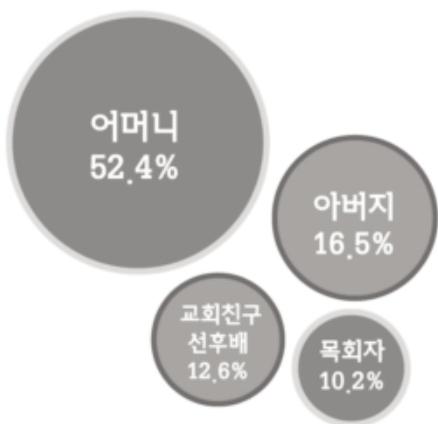


특집 차세대 신앙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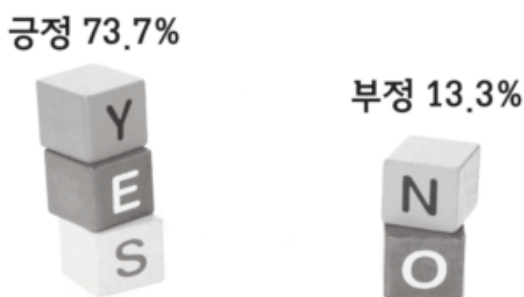
신앙공동체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기독교 인식과의 관계

양육태도, 또래집단,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가 영향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신앙공동체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보여 준다. 특히 부모가 평소 신앙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청소년들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달받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선한 모범 보이는 행복한 교회공동체

이 연구의 시사점과 함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부모, 교역자, 교사, 또래 집단 모두를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 부모(70%)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다. 어머니(52%)와 아버지(18%)의 영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영향력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시대 아버지들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신앙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어머니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동등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족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또래 집단이 부모 다음으로 신앙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것은 교회의 설교와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신앙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이라고 간주되던 '학교식 교수 형태'의 인식에 대한 경고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동일시와 모방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청소년들과 관계형성을 잘 이루어서 신앙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영향을 받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그들 중에서 90% 이상이 가정에서 신앙 훈련 또는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비판만 전달하게 되면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체계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교회공동체, 신앙의 선한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노희태 목사
(온누리교회 차세대
본부장, 두란노 새
벽나라 편집장)

차세대는 교회의 미래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차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면 20~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한국 교회도 서구의 빈 교회들처럼 고사되고 말 것이다. 교회가 옛 종교역사에 등장하는 유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차세대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이다. 이는 부모, 목회자,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만큼 차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차세대사역본부장 노희태 목사(차세대본부장)가 온누리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신앙공동체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기독교 인식과의 관계'의 함의를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청소년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다. 자의식 발달과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이 과제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 주변 모든 사람, 곧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저출산 현상, 경쟁주의, 세속화 등은 기독교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앙정체성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필자는 다음세대 자녀들이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공동체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적절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하여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온누리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앙공동체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기독교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다.

신앙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연구의 대상은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384명이다. 응답자들 중에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74.2%로 가장 많았고, '가족 일부만 나오는 경우' (16.7%), '혼자 나오는 경우' (5.5%)가 그 다음 순이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74.5%,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20.8%였다.

신앙공동체의 구성원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들의 태도가 신앙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어머니'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버지' (16.5%), '교회 친구 및 선후배' (12.6%), '목회자' (10.2%), '교회 교사' (5.9%), '형제 및 자매' (1.2%)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 해주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율을 합한 부모의 비율이 무려 68.9%에 이르렀다. 또한 '목회자'와 '교회 교사'에 비해 또래 집단인 '교회 친구 및 교회 선후배'의 영향이 높게 나온 것은 가족관계보다는 친구 관계를 중시하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님과 신앙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하고 신앙교육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자주 이야기하며, 신앙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았고, '비교적 이야기하며, 신앙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5%이고, '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가 10.9%,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비교적 많은 온누리교회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에 대한 양육을 받고 있다(79.4%)'고 추측할 수 있다.

평소 부모님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불만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가

76%로 가장 많았다. '있다' 18.2%, '자주 듣는다' 0.8%, '매우 자주 듣는다' 0.5% 등으로 약 20%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놀라운 것은 부모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불평을 들어본 청소년들 대부분이 (90%) 부모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앙교육을 받고 있었다.

신앙공동체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이라는 응답이 73.7%이고, 부정(문제가 많다)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13.3%, '그냥 그렇다'는 8.9%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신앙공동체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기독교 인식과 구원의 확신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의 기독교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 인식이 예수님 영접 여부 및 구원 확신과 상관이 있었다. 이는 신앙공동체의 양육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만큼 신앙공동체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기독교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종합하면 청소년은 자신의 신앙 경험, 주변 교역자나 교사 등의 신앙 도움, 부모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에 신앙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려면 세상에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논리는 ‘기독교가 만일 진리라면 하나님은 선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일 것이다’이고, 두 번째 논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실 것이다’입니다. 세 번째 논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으신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혹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존재는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려면 고난이 존재하지 않도록 통치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려면 고난을 막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고난은 최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선하고, 그 친구가 여러분이 고난을 막아줄 능력이 있다면 그 친구는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을 막아줘야 합니다. 만약 그 친구가 여러분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거나 무능한 것입니다.

고난은 최악의 일이 아니다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고난이 정말 최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악은 더더욱 아닙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악으로 인해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가장 흔한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죄와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선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흔히 받은 고난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때로 이런 고난은 자신의 선택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할

지라도 유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베드로전서 2장 20~21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20~21절).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17절).

이 말씀들을 압축해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될 뿐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선을 위한 고난은 은혜로운 일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위한 고난이 왜 은혜가 되며, 부르심이 되며,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고난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고난과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면 그로 인한 고난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악을 행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의 가치, 그 기능, 소중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때로 나쁘고 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고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나쁜 선택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자유의지가 있다면 선이든 악이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나쁜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선한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궁한 자유,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의 이면에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다 같다면 의미 있는 자유를 가진(악한 행위보다 선한 행위를 자유롭게 더 많이 행하는) 피조물이 있는 세계가 자유로운 피조물이 전혀 없는 세계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지만 그들이 옳은 일만 하도록 결정하시거나 만드실 수 없다. 그렇게 하실 경우 그들은 결국 의미 있는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고 자유롭게 옳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선이 가능한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악이 가능한 피조물을 창조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 피조물에게 악을 행할 자유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그들이 그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유로운 피조물 중에 그 자유를 그릇된 방향으로 행사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것이 도덕적 악의 원인이다.”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악도, 죄도, 반역행위, 선한 선택,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나무와 산과 물과 자연만 창조했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선택을 누가 하겠습니까. 고요한 세상, 죄가 없고, 악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없는 세상보다 의미 있는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세계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도덕적 선이 가능한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악이 가능한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할 자유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태초에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악을 택한 이들을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도덕적 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드라마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악으로 인한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 변화의 목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난 없이 성품이 선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위협에 맞서지 않고 어떻게 용기라는 성품이 계발되었겠습니까. 시련 없이 어떻게 인내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 딜레마 없이 어떻게 지혜가 얻어지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 없이 어떻게 거룩과 순결을 계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선한 성품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선함도 계발되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한 양심, 도덕적으로 선을 택하는 기능이 계발되도록 시험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역올한 상황에 처하면 “진짜 내가 선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고난이 크고 깊을수록 선함이 크고 깊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선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이요, 은혜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도록 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정말 견고하고 튼튼한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열 속에서 구워지는 것입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구워지면 그 도자기는 금방 깨져버립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빚어지고 나왔을 때 견고한 도자기가 만들어지듯이 고난이 뜨거울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 형성되어 갑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행복 시리즈 2탄

홀리다잉(Holy Dying)과 행복

미완성의 완성 이루는 홀리다잉(Holy Dying)

홀리다잉, 기독교적 삶과 죽음만이 진정한 행복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죽음에도 질(質)이 있고 그것이 행복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 2015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기관 EIU가 발표한 '세계 죽음의 질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80개 국가 중에서 18위를 차지했다. 세계 죽음의 질 지수는 임종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고, 가족이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세계 죽음의 질을 처음 조사한 2010년에는 한국은 40개 국가 중 30위였다. 불과 5년 만에 12계단이나 경중 뛰어오른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사실 이 지수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질적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질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의료시설, 의료진의 능력에 비해 죽음의 질적인 면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과정을 '웰다잉(well dying)'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인 '홀리다잉(Holy Dying)'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홀리다잉은 교회만이 실천할 수 있다. 기독교적 삶과 죽음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미완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다. 문제는 아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이고,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웰다잉(well dying)이라고 부르지만 기독교에서는 홀리다잉(Holy Dying)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웰다잉과 홀리다잉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웰다잉법'이 시범 실시되었다. 웰다잉법은 일명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데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말한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아름답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웰다잉이다. 어떤 면에서 웰다잉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존엄사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크게 낼 수 밖에 없다. 홀리다잉은 웰다잉과 비슷한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고차원적이다. 홀리다잉은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준비를 하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과정이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사실 죽음만큼 공평한 것도 없다. 누구나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잔인하다. 언제 찾아올지 아

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죽음이 찾아올지, 백수를 누리고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케네디 대통령이 선거 유세차 간 곳에서 괴한의 총탄을 맞고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적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한순간에 쓰나미에 휩쓸릴 줄 누가 알았을까.

여러 종교와 학자들이 죽음에 대해 내린 정의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죽음을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학회(대한의학협회)는 '심장기능 및 호흡기능과 뇌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 법률은 '사망은 일반적 권리능력의 유일한 소멸원인', 의학적으로는 '심장의 박동이 끝나고 호흡이 멎으며

동공이 고정되고 반응이 없어지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육체의 죽음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조금 더 심오하고 영적이다. 윤회를 믿는 불교에서는 죽음을 열반(생사의 고통을 뛰어넘는 초월의 경지)이라고 한다. 유교에서는 불교처럼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죽음관이 확실하지는 않다. 그저 조상을 뿌리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며, 나를 통해서 자손이 뻗어나감을 통해서 영원히 삶이 이어진다고 해석했다.

기독교의 죽음관은 이와 사뭇 다르다. 기독교는 죽음을 육체적, 영적, 영원한 죽음으로 구분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지음 받았을 뿐 아니라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죽음

전문가 기고



김정숙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삼성서울병원 원목)

병원선교 30년 동안 수많은 장례식을 집전했다. 그러면서 죽음이 내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죽음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의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해 몇 가지 나누고 싶다.

첫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이 온 마음을 지배한다. 아기 때에는 복식호흡을 하다가 어른이 되면서 흉식호흡을 한다. 그러다 질병 혹은 노화로 인해 죽음 앞에 이르면 쇄골호흡을 하고 숨이 차기 시작한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험한다.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에 의한 숨이 차는 것과 다른 것이다. 죽음으로 가는 호흡곤란은 본인 외에는 그 두려움을 논할 수가 없다.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숨을 거두게 된다. 이 시간에 환자들은 정말이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어감을 두려워한다.

둘째, 성경적인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13).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내세'가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죽음을 선택 받아들이거나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온다.

질병이나 사건사고로 임종이 다가왔을 때 가족들과 함께 평소 좋아했던 찬양을 조용히 불러주고,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면 성도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천국을 사모하며 고요히 눈을 감는다. 가족이나 성도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임종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아버지, 천국이 보이세요?"

나는 아버지의 임종을 통해 성경적인 죽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내 아버지는 늦게 믿으셨지만 죽음에 대해 설명 드렸더니 슬픔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둘러 앉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누고 아버지에게 알맞은 찬송

을 불러 드렸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찬송가 287)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조용히 불러 드렸다. 순간순간 어린 시절 추억도 들려드렸다. 당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미신을 접하지 않고 푸닥거리 한번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숨을 쉰색거리다가도 "응, 그랬었지. 동네 당산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서 마을길을 막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돌아서 갔지만 나는 그 나무를 잘라다 뺐잖아.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재앙이 내릴 거라고 했는데 7남매 건강하게 잘 자랐지"라며 무척 좋아하셨다.

나는 감버섯이 심하고 메마른 아버지의 피부를 만지며 죽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다가오게 되었다고 인식한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5~26).

성경 속 인물들의 죽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죽었다. 성경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야곱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 애도했으며(창 50:3), 야곱의 장례를 위해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전의 원로들과 이집트의 모든 원로들, 전차와 기병까지 함께 요셉을 따라갔을 정도로 장례 행렬이 아주 길었다(창 50:7~9).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 사람을 위해 70일 이상을 슬퍼하고, 왕을 비롯한 이집트의 정치거물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 그는 더 많은 재산을 물리려고 하거나, 더 큰 명예를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늙은 종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창 24:3~4)고 말하며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올 것을 명령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의 혼사를 염려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애굽 여인에게 장가를 든 이 스마엘을 보면서 이삭마저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다른 족속과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도록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



죽음은 영원한 여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이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산 채로 승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1~24).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히 11:5)이 에녹을 죽음을 겪지 않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고 비를 내리게 한 위대한 예언자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말 4:5)고 예언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

히 두려워하기도 했다(마 17:1~8). 엘리야의 죽음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다.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요단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홀연히 불타는 수레와 불 말들이 나타나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목도하고 놀라 소리쳤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왕하 2:14).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제자인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마지막을 목격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영원한 여정 준비하는 행복

믿음의 조상도, 한 민족을 이끈 위대한 선지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죽음을 알고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홀리다잉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으면 끝’이라는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죽음 이후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기에 더욱 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해답이 숨어 있다(눅 12:16~21). 옛날에 한 부자가 큰 풍년이 들어 곡식 쌓을 곳이 없어 곳간을 크게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며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 데려가셨다. 어리석은 부자는 집도 땅도 곡식도 재물도 가져가지 못했다.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잘 죽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매일을 사는 것이다. 1박2일 여행을 가려고 해도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물며 죽음은 영원을 위한 여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 갈 수 있다. 스펔전 목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지요”라고 했던 유언을 우리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홀리다잉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 행복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아버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흰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실 의의 새 옷을 입고 들어갈 그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시면 전에 껴박했던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오신 것을 보시고 반겨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에 진정한 평안이 임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상의 미소를 지으시며 연거푸 “좋다. 참 좋다”는 말씀을 반복하셨다. 내가 “아버지, 천국이 보이세요?”라고 묻자 “응” 한마디를 하시더니 가족들을 돌아보시곤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가 일생을 살아온 방에서 그 시간에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고통의 시간을 함께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드렸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해되자 쥐고 있던 생명을 놓고 너무나 평안하게 천국으로 떠나셨다. 당시 아버지는 폐암진단을 받은 이후 입원과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셨다. 1년 동안 집과 자주 가시던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면서 즐겁게 지내셨

다. 그리고 몸져누운 지 보름 만에 천국으로 가셨다. 몸은 앙상하고 생기고는 없었지만 딸의 임종 도우며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셨다. 부족한 나에게 아버지는 임종 도우미의 교과서가 되어 주셨다.

홀리다잉과 죽음에 대한 편견

셋째, 성도의 죽음은 ‘홀리다잉(Holy Dying)’이 될 수 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창 15:15).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또한 준비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웰다잉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죽음의 복은 웰다잉을 넘어 홀리다잉(Holy Dying)이 되어야 한다. 홀리다잉은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사람의 곁에서 돕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환우들의 임종 도움을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그동안 만났던 환우에게 임종이 다가

오면 간호사를 통해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나는 그 전화를 받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간다. 종일 병상을 돌아다니느라 매우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예수님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는 환우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다.

마지막 시간에 안심과 안정을 주고 조용히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숨이 차서 요동치던 육체에 고요가 찾아오고, 숨결이 고르게 되면서 평안히 영혼이 육체를 빠져 나가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죽음이야말로 성경적이고, 홀리다잉이다.

넷째,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어느 기자가 나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임종 후의 모습이 다르나”고 질문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의 모습은 누구나 평온합니다. 분명 죽음에는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색깔은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질병에 따라 죽어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환우는 황달로 인해 온 몸이 노랗게 되고, 혈액

종양을 앓은 분은 얼굴색이 푸르스름해 지기도 하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죽었다’, ‘천국에 갔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비기독교적인 것이고 너그럽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죽음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고통이 수반되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마치 나방이 누에고치를 빠져 나오듯이 당연한 모습이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간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정상적이다.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다가도 마지막 시간이 되면 고요해지면서 참 평안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죽은 후의 얼굴을 보며 편견을 갖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겉옷과 같은 육체는 피가 식음으로 인해 편안하게 보인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창 49:33).

임종 도움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과 같은 자연스럽고 평안한 죽음이 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ReFORM'

내가 돌이키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새로워진다

Reform, '다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Re'와 '방식이나 형식' 혹은 '형성되다, 구성되다'는 뜻을 가진 'form'이 결합된 단어이다. 낡거나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고치는 일을 의미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17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ReFORM'은 나, 교회, 세상을 리폼하는 축복의 장이었다. 3일 동안 이어진 집회에 하루 평균 2천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서 죄를 회개하고, 나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리폼하기로 작정하고 부르짖었다. 회개의 눈물과 결단의 외침이 행사장을 뒤덮었다.

첫날 '나를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 맺기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합니까?"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나를 새롭게 리폼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세 가지 기술을 제안했다. 소망,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것이다. 소망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고, 내적인 변화는 매순간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뜻했다.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나를 새롭게 리폼하기 위해서는 "매순간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은혜는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느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에

서 시작해서 외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적인 변화(기도원, 기독교 컨퍼런스 등)만 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면했다.

둘째 날 '교회를 새롭게' 예배와 예배자의 변화

스카이 제서니 목사의 교회를 새롭게 리폼하는 방법은 단순했다. 예배와 예배자가 변화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리폼 된다고 했다. 예배는 "축복이 주어질 때만 기쁨으로 드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강조했다. 예배자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자"라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길이 곧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임을



스카이 제서니 목사
(전 리더십저널 편집장)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명심하라"고 권면했다.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는 오직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리폼되는 길이라고 했다. 그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됨(엡 4:3)이었다. 유 목사는 "예수님의 교회임을 진실로 믿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족으로 여길 것"을 권면했다.

셋째 날 '세상을 새롭게' 시각의 변화, 다스림, 소명 발견

스카이 제서니 목사가 제시한 세상을 새롭게 리폼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다스림, 소명 발견이 그것이다.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세상을 위함한 곳이

라고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내야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다스림은 "크리스천들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의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바로 그 소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나, 교회, 세상을 리폼한 사람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윤정희 사모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저자)

이 시대는 신앙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20여 년 전, 나는 돈을 정말 좋아했다. 남

편이 토목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큼 많은 현금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현금을 많이 하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다. 그 좋아하던 돈을 내려놓는 훈련은 정말 많이 힘들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죽어가는 둘째 딸 하선이를 보면서 깨달았다. 많은 돈과 뛰어난 의술로도 하선이를 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던져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선이를 살려주셨다.

지금 하선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선이를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이주연 목사
(산마루교회 담임)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산마루교회가 노숙인 사역을 시작할 무렵 여름이었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워서 노숙인 형제들과 씻고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당연히 먼저 온 순서대로 씻을 줄 알았다. 그런데 가장 먼저 씻으러 오신 칠순님은 어르신인 “너희들 먼저 씻어”라며 양보하셨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노숙인들은 양보를 안 할 줄 알았던 것이다. 내가 그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괴감이 들었다.

죄를 짓지 않은 성자는 없다. 그 누구도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때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다.

나는 희망을 봤다



윤현목 전도사
(한국성서대 성서학과)

2년 전 어느 날이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머니 한 분이 폐지를 줍고 계셨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어머니가 그 날따라 달라보였

다.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폐지를 줍고 계신 그 어머니를 계속 보여주셨다. 그때부터 폐지 줍는 어머니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했다. 처음에는 야광조끼를 사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보온병에 울무차를 넣어서 어머니들을 찾아다녔다.

폐지 줍는 어머니들을 만날수록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몸이 편찮으셔서 집 밖을 나오기가 어려운 어머니들도 찾아갔다. 그 어머니들의 친구가 돼 드리고 복음도 전했다. 이렇게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3명밖에 되지 않지만 나는 희망을 봤다.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희망이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희망을 전했다면 좋겠다.

다음세대를 위하여



최유강 대표
(드림터치포울)

문득 미국유학을 꿈꾸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마음이 불편했다. 기도를 하는데 교육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 문제로 인생이 꺾인 사람들도 보였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 나의 사명은 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림터치포울’이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과 탈북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대학생 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봉사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다음세대들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감사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성장한 다음세대들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삶과 신앙을 리폼한 믿음의 선배들

장사꾼 서상륜의 돌이킴

서상륜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가난 때문에 장터로 나온 몰락한 양반이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이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청나라로 떠났다가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 때 서상륜을 살린 사람은 파란 눈의 선교사였다.

“내 나라 사람들은 나를 도적놈이라고 미워했는데 얼굴색 다른 사람이 도리어 나를 사랑하니 어찌 된 연고이뇨.”

중국어에 능통했던 서상륜은 한문성경을 번역해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발간했다. 그 성경 10권을 품고 외가가 있는 황해도 소래로 들어가 한국인 최초로 ‘소래교회’를 세웠다.

길선주 목사의 회개

“이 죄인이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폭발하는 욕심 때문에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이제야 회개합니다.”

길선주 목사가 대성통곡하며 회개하였고 예배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운동으로 기록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길선주 목사의 눈물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조덕삼 장로의 겸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시대, 조덕삼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머슴 이자익이 자신을 제치고 장로로 선출되자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도 조덕삼은 겸손하게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다.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했다. 훗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기까지 했다.

이기훈 목사의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을 찾아서 4

개혁신앙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교회에서 교회로, 국가에서 국가로

종교개혁하면 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독일을 떠올리지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고, 미국에서 성장한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다.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과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기훈 목사가 영국 개혁주의 신앙의 흔적을 찾아가는 글을 4회 연재한다. 그 마지막 글이다. / 편집자 주



말을 타고 전국 순회설교사역을 했던 요한 웨슬리의 동상(브리스톨 뉴롬교회).

영국에는 복음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찍 전해졌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길다. 세인트 패트릭과 콜롬바에 의해서 세워진 켈트 교회를 시작으로 가톨릭, 국교회로 자리매김한 성공회, 존 녹스에 의해 세워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유럽 개혁신앙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영국 개혁교회의 역사는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다. 영국의 개혁교회는 때로는 가톨릭교회로부터, 때로는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와 사역

청교도운동 이후 영국 교회의 역사를 이어간 사람은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이다. 웨슬리는 1703년 6월 28일 영국의 작은 도시 엠워스(Epworth)의 성공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사이에서 19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났다(19남매 중 11명은 일찍 사망함). 신실한 청교도였던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날로 구별하도록 가르쳤다. 특히 그녀는 매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지금도 엠워스의 교회에 가면 그녀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 교회를 방문만 해도 어머니 영성의 중요성이 저절로 느껴진다.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이자 동역자이며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인 찰스 웨슬리는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의 열매였다.

요한 웨슬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홀리클럽(Holy club)’이다. 그는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처치대학을 졸업하고 3년 후 어릴 적 서원한 대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그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으며, 20가지 생활규칙을 정해놓고 경건생활에 열심을 다했다. 링컨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1729년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을

결성했다. 이 모임은 성경연구, 묵상과 기도, 교도소 선교와 같은 복음의 사회적 실천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유행처럼 실행하고 있는 QT가 바로 홀리클럽에서 시작되었다. 옥스퍼드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이 경건운동에 참여했다. 사람들은 율법주의는 아니면서 엄격하게 경건생활을 추구하는 이들을 규칙쟁이 즉, 메소디스트(Methodist)라고 불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오늘날 감리교회(Methodist Church)가 태동되었다.

요한 웨슬리의 생애에서 두 번째 기억되는 것은 모라비아(보헤미안 복음주의자들) 성도들과의 만남이다. 1735년 미국 선교를 위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그가 타고 있던 시몬즈호가 태풍을 만나 거의 좌초하게 되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웨슬리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찬송소리를 듣게 된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신과 달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신앙인들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독일 모라비아 선교단으로서 조지아주 인디언을 선교하러 가던 차였다. 웨슬리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4개월 만에 미대륙에 도착한 웨슬리는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조지아주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에 매진했다. 그러나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의 모함으로 상처를 받았고, 목회에서도 열매가 없자 2년 간의 사역을 접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며 가장 낮은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는 모세처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귀국하였다.

세 번째 요한 웨슬리의 생애에서 기억되는 것은 성령체험이다. 그의 절망은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졌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웨슬리는 런던의 알더스 게이트(Alders gate)가의 어느 집에서 열린 모라비아인들의 집회에 참석했다. 저녁 8시 45분경 루터의 로마서강해를 듣고 있던 웨슬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체험하였다. 그는 이 체험에서 구원의 확신과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체험을 기

점으로 웨슬리는 본격적으로 설교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지금 런던의 그 자리에 가면 집은 없어졌지만 웨슬리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대형 비석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웨슬리의 생애에서 기억되는 것은 영국 남서쪽의 도시 브리스톨(Bristol)에서의 사역이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났고 농부들은 농토를 버리고 공장과 광산이 있는 도시 주위로 몰려들었다. 브리스톨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성공회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웨슬리는 1739년 복음주의 부흥의 주역 3인 중 한 사람인 핏필드의 초청으로 브리스톨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집회 장소였던 성공회 교회가 예배당 사용을 불허했다. 그 이유는 웨슬리가 성공회 사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제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성공회는 웨슬리가 어떤 교회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웨슬리는 이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The world is my parish)”라는 유명한 비전을 선포하였다. 결국 계획한 집회는 야외에서 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회가 열릴 때마다 3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으며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났다. 웨슬리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50년 동안 말을 타면서 전국 순회 설교사역을 하였다. 그는 평생 40만km를 다니면서 4만2천회 이상 순회설교를 하였다. 이러한 그의 흔적은 영국의 중소도시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면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다. 브리스톨에서 사역을 시작한 웨슬리는 땅을 매입하고 예배당을 짓고 1739년 6월 3일 첫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뉴롬(The New Room, John Wesley's Chapel)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감리교회 건물이다. 브리스톨 시내에 위치한 이 교회는 출입구가 앞뒤로 있으며 웨슬리 형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반대편 마당으로 가면 말을 타고 있는 요한 웨슬리의 동상이 있다. 이 교회는 순례자들에게 항상 개방된다. 웨슬리가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강대상에 올

라보면 그의 영성이 느껴지는 듯하다.

요한 웨슬리의 영성을 찾아서

런던에 가면 웨슬리의 영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몇 곳을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먼저 방문할 곳은 웨슬리 채플이다. 1778년 세워진 이 교회에는 지금도 주일이 되면 각 나라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예배에 참석해 서로 감동을 나누고 있다. 채플 뒤편으로 가면 웨슬리의 무덤도 볼 수 있다. 웨슬리 채플 길 건너편에는 묘지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잠들어 있을 뿐 아니라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다니엘 데포의 묘, 시인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묘도 있다. 그러나 방문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존 번연의 묘이다. 비록 존 번연은 죽었지만 무덤을 통해서 방문자들에게 여전히 청교도 신앙을 전하고 있다.

두 번째 가볼 곳은 1779년에 지은 웨슬리 하우스이다. 그는 마지막 생애 11년 4개월을 이 집에서 보냈다. 그의 집에는 웨슬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침실 뒤에 있는 기도실, 방문 설교자들을 위한 방, 웨슬리가 직접 사용했던 다양한 가구들을 비롯해 400여 권이 소장되어 있는 개인 도서관, 친필서명노트, 심방카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썼던 펜 등이 보존되어 있다.

세 번째 가볼 곳은 웨슬리 박물관이다. 이곳에 가면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를 포함해 더 많은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웨슬리가 설교하는 모습과 마지막 임종 순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영국 복음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유명한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회심하고 목사가 된 존 뉴턴, 정계에 진출해 노예무역과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교육계에서 주일학교 운동과 청소년 신앙교육과 도덕교육에 헌신했던 한나 모어 등은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18세기 복음주의운동을 주도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대서양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가 대각성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개혁신앙과 복음주의운동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국가에서 또 다른 국가로 계속 이어져 갔다. 복음주의운동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촌에서 계속 일어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부, 일대일 사역 본부장)

재미있는 페르시아 역사이야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magos)’라는 단어다. 매대, 바사, 갈대아인 사이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던 성직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니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다니엘을 마술사, 주술사, 점성술가와 점술가들 사이의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곧 임금이 다니엘을 동방박사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예수를 방문한 동방박사들이 마술사나 주술가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그들이 점성술가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던 동방박사들이 바로 페르시아인들이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을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우리는 바대인과 매대인과 엘람인과...”(행 2:4-9).

여기서 바대인은 이란 북동부 지역, 매대인은 이란 서부 지역, 엘람인은 이란의 남서부 지역의 후제스탄 주(州)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페르시아인들이었다. 이 페르시아인들이 성령세례를 받은 뒤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이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 때부터 이란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1956년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돌십자가

페르시아의 기독교 역사는 1세기 말부터 5세기 중엽까지 아르벨라 교회의 활동기와 5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의 네스토리우스파의 활동기로 나눌 수 있다.

아르벨라 교회는 에데사 교회와 더불어 시리아 문화권에서 생성했고, 네스토리우스파는 안디옥의 희랍어 문화권에서 생성했다. 그런데 안디옥의 네스토리우스파가 박해를 피해 페르시아로 피신하면서 아르벨라 교회와 합쳐지게 되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집권자들이 네스토리우스파를 편의대로 대했고, 이슬람 세력이 페르시아에 들어오자 네스토리우스파는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섰다. 그렇게 네스토리우스파는 6세기 이후 페르시아의 박해를 피해 인도로 들어갔다. 그들은 생사를 걸고 전도해서 인도에 교회가 융성했다. 그러자 인도 당국은 기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세속에 빠져 축재욕에 불타게 되고 교회가 쇠

되하고 말았다.

635년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 들어갔다. 중국의 황제 당태종이 네스토리우스파를 공인하면서 250년 동안 중국의 기독교는 승승장구했다. 수 만 명의 신도를 모았지만, 845년 회창법단과 878년의 황소의 난으로 기독교인들이 중원에서 멸족되고 잔존세력이 몽골과 한반도 인접지역인 만주 등지의 변방으로 흩어졌다.

기독교가 한반도에도 들어왔다는 연구도 있다. 그 근거는 1956년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돌십자가, 2점의 철제 십자문 장식, 성모마리아 소상이 그것이다. 돌십자가는 좌우상하가 대칭적이며, 십자가의 5형 중에서 초기 십자가형인 그리이스형에 속한다. 2점의 철제 십자문 장식은 용도가 불분명하나 부작용 장식품인 듯하다.

국내외로 퍼졌던 페르시아 기독교의 등불은 이슬람에 의해 점점 빛을 잃었다. 페르시아는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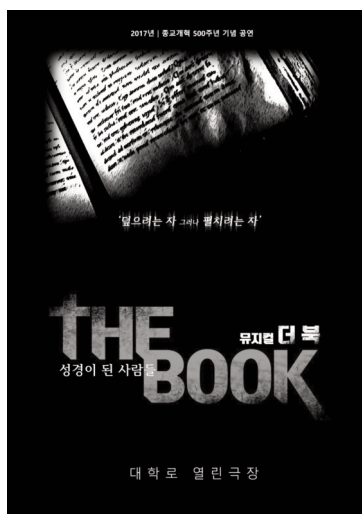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979년 이란은 혁명으로 이슬람공화국을 세우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이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이란의 이슬람혁명 때까지 기독교 인구가 약 250~300명이었다(1977년 통계). 그러나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인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수만 명이 타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조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일 중 하나가 미국과 유럽에 위성방송 기지를 만들고 이란으로 페르시아어로 만든 기독교 위성방송을 내보내는 것이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이란의 기독교인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위성방송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를 추산할 수 있다. 현재 크리스천 이란인 숫자는 적어도 1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들 모두 예레미야 49장 39절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 이란인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 용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이란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

박씨바 전도사
(페르시아어 예배)

올 가을 꼭 한 번 봐야 할 공연 - 뮤지컬 ‘The Book(더북)’



오직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영화와 공연을 선보이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뮤지컬이 한 편 나왔다. 뮤지컬 ‘The Book(더북)’이다.

뮤지컬 The Book(더북)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100년 전에 살았던 ‘롤라드’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15세기 초 가톨릭교회의 제도와 관행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속임수에 속고 있던 영국 노리치에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톨릭교회는 그들을 ‘롤라드

(Lollard, 중얼거리는 자)’라고 부르면서 경멸했다.

이 뮤지컬의 주인공은 평범한 서민에 불과했던 롤라드 아이린이다. 아이린의 영향을 받아 그의 아버지 토마스와 어머니 하위사가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 뮤지컬의 주를 이룬다. 아이린과 롤라드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핍박하려는 냉정한 이단감찰사제 ‘베르나르’와 서민들을 회유시키려는 이단감찰사제 ‘로버트’가 극의 긴장감을 높인다.

The Book은 이미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1월 공연에서는 객석점유율이 105%였고, 2월 공연에서는 108%, 3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90%대 객석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관객 4만 명을 돌파했다.

롤라드들은 가톨릭교회의 핍박으로 성경을 전하기 어려워지자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씩 맡아 모두 외워서 사람들에게 전했다.

The Book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숭고한 희생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주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후 8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15시와 19시에 열린극장(종로구 창경궁로 258-12)에서 막 오른다.

문의: 010-2648-8255

새 음반 - 마커스워십 ‘How Can I Go?’



다윗처럼

마커스워십의 아홉 번째 정규예배앨범 ‘How Can I Go?’가 발매됐다. 10월 23일 디지털 음원, 10월 26일에는 CD가 발매됐다.

이번 앨범에서 마커스워십은 다윗을 주제로

11곡을 만들었다.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고 찬란하게 등장한 다윗이 10여 년 동안 걸어진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떠올리면서 제작

했다.

마커스워십의 아홉 번째 정규예배앨범 ‘How Can I Go?’에는 ‘만군의 여호와’, ‘나 기대해’, ‘내 노래되시네’, ‘대단한 믿음 없어도’, ‘다윗의 노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나는 오늘도 가네’, ‘기꺼이 주께(요나단의 고백)’, ‘믿음과 삶’, ‘그 길을 따라’, ‘가라! 그들에게’ 등 11곡이 수록되어 있다.



지난 25일 열린 Acts29 비전 컨퍼런스.

2017 Acts29 비전 컨퍼런스 개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비전위원 등 100여 명 참석

29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비전을 공유했다. 지난 25일 ‘2017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미주,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베트남, 아부다비 등 29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 해외비전교회 협력위원, 당회운영위원, 캠퍼스 담당목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Acts29 비전 컨퍼런스는 강의선

장로의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비전 메시지, 이철 장로의 인사, 지역별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 비전이 중요하다”면서 해외비전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현규 목사(홍콩이그나이트)는 “비전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해외비전교회 목사님들과

만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했고, 김철희 목사(나고야 온누리교회)는 “29개 해외비전교회 모두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의선 장로(해외비전교회 협력위원장)는 “각 나라의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해외비전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목회자들과 비전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나라와 민족, 교회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장로중보기도모임 오두산 통일전망대 구국기도회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소리가 북녘 땅까지 메아리쳤다. 지난 20일(금) 장로중보기도모임 소속 장로 42명이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구국기도회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손기수 팀장의 해설, 찬양 및 기도, 조항진 장로의 기도, 북한

지역 조망 및 전시장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항진 장로(장로중보기도모임)는 “통일의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했고, 장응복 장로는 “1950년 12월 북한을 떠났을 때가 많이 생각났다”면서 “살아 있는 동안 속히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장로중보기도모임의 구국기도회가 열린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992년 9월 개관했다. 서부전선의 최북단에 위치해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정부의 통일 노력, 실향민이 그린 북녘그림 등을 전시한 ‘그리운 내고향’ 전시실과 방문록을 남길 수 있는 연원실 등이 있다.

장로중보기도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 이소정 기자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해 주세요

동명부대(국제평화지원단 레바논 평화유지군)에서 온누리교회에 12월 5일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는 동명20진 장병들에게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상영해 줄 것을 부탁했다. 더불어 장병들에게 전달할 간식후원도 요청했다.

동명20진 소속 장병 340여 명은 12월 5일 출국해서 약 8개월 동안 이슬람 테러단체의 위협, 팔레스타인 난

민과 이스라엘 분쟁 위험 속에서 레바논 주민들을 보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동명20진 정세준 목사는(군종장교)는 “12월 5일 파병을 앞둔 장병들에게 서서평 선교사가 몸소 실천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도록 영화를 꼭 상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6208-6256

오늘(29일) ‘구원론’ 특강

올바른 구원론 정립을 돕는 ‘구원론’ 특강이 오늘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열린다. 강미향 목사가 강의한다. 온누리교회 새가족이나 구원에 대해 재정립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구원론 특강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해결해야 할 2가지 문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과 구속의 관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여성사역 가을콘서트 개최

서빙고 11월 15일, 남양주 11월 1일

서빙고와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이 가을콘서트를 개최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가을콘서트는 11월 15일 본당에서 열린다. 소마트리오와 챔버, 바리톤의 특수와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을콘서트는 11월 1일 본당에서 열린다. 백은주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바이올린 연주와 간증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201
남양주 031-565-9686

야베스맘 가을세미나 개최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여성사별자모임 ‘야베스맘’에서 가을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403호에서 진행된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회비는 식사비와 교재비 포함 3만원이다. 가을세미나에서는 ‘사별의 슬

픔 이해와 극복’, ‘노년의 축복된 삶’, ‘원예치료’ 등을 주제로 이창규 목사, 정호욱 목사, 정수진 박사가 강의한다.

한편 야베스맘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03호에서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다.

문의: 010-3217-9593

CCF 주한 이스라엘 대사 초청 포럼

CCF(Christian CEO Forum)에서 지난 25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이스라엘 근황과 비즈니스 기회’를 주제로 주한 이스라엘 대사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하임 호센(Chaim Choshen) 대사와 샤이 파일러(Shay Feiler) 상무관이 강연했다.

하임 호센 대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이

스라엘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샤이 파일러 상무관은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대표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한국의 비즈니스 협력관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철우 집사(CCF 부회장)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만 알고 이해했었는데 오늘 포럼을 통해 이스라엘 산업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10월 세레자

■서빙고

김종현 760313
김현규 870529
문 오 620505
문정모 790625
박주형 470228
오지현 760123
윤희정 800125
정은지 800129

유아

김사랑 161023
김금식 고새봄
김세윤 151229
김광석 이지은
김은유 151209
김철민 정지은
김하겸 160219
김재승 이진숙
남지원 160106
남석우 한은선
양희은 170325
양정모 김지현

옥서현 170115
옥성우 박진미
윤재희 160212
윤성주 허정임
조규현 160514
조의환 김현진
조이든 151110
조솔로 김태영
최태현 160926
최승열 은진화

■양재

강희수 650420
김병규 680902
박지윤 820228
안태근 661129
오미선 700811
유연정 721224
차중협 831210
하대원 701204
유아
김소울 151012

김형욱 이소용
김소이 151012
김형욱 이소용
문세인 150908
문덕수 남지원
박지율 161129
박종익 허정아
석주엘 170304
석상백 지수빈
송민서 160328
송영우 조윤희
안다빈 161113
안진규 전주형
오재훈 151001
오철호 박현미
윤민호 160817
윤현규 허지원
임이레 150615
임낙균 조혜윤
정승진 150818
정재훈 박지윤
조호현 151027

■대학청년부

허브

우채린 980930
정혜지 941212

입교

권무성 971229
박하영 981124

SNS

박수연 920913
장보원 870627
최민수 890314

W

권신혜 860419
한창학 811215

유아

김라엘 170428
김정욱 박소미

■ 이주민을 위한 하비스트(HAVEST) 집회 간증



/ 메흐르다드 성도(페르시아어예배)

살리시는 하나님

이주민을 위한 ‘하비스트(HAVEST)집회’에는 처음 참석했다. 많은 나라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행복했다. 먼저 설교와 간증이 나를 만났다. 폴킴 목사님이 이라크 전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음에 와 닿았다. 폴킴 목사님과 가톨릭 신부가 죽어가는 병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톨릭 신부는 천국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폴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병사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부분이 감동적이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비스트 집회에서 나도 살려주셨다. 목안에 났던 상처가 깨끗하게 나은 것이다.

하비스트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각 나라 리더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각 나라 언어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쓰는 단어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찬양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 다른 신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겼다. 그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무슬림이었지만 지금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냈다. 이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반발심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 사람은 이슬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게 됐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어두운 영이 그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평택M센터에서 온 타지키스탄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는 것 같았다. 처음 봤을 때와 헤어질 때 표정이 180도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 받을 때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굳건하게 나아갈 것이다. 페르시아어예배가 더욱 단단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

■ 서빙고 예배학교 간증



/ 호유미 성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온지 2년이 지났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였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예배에 대한 것이었다. 정상적인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곳이 바로 온누리교회다.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너무 커서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 예배 순서와 환경은 낯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 간절했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했고, 죽을 것 같았던 내가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들을 보냈다. 그날 이후 자녀들이 속한 유치부 교사와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다.

온누리교회에서 더 건강하고 성경적인 예배를 배우고 싶었다. 유치부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예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예배학교에 참가하게 된 이유다. 나는 예배는 곧 설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자라왔다. 이런저런 의문들이 있긴 했지만 그 의문들은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많이 교정되었다.

나는 디자인을 전공했고,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다. 디자인은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은 전공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리라는 마음으로 경력을 쌓아오고 있다. 이전 교회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문제가 되어 교회를 옮기게 되는 사건까지 생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보았다.

“하나님, 왜 제가 디자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나요? 디자인으로 저를 쓰시려는 것이 아니셨나요?”

최근 어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학교 서빙고 2기 모집
기간: 10월 29~11월 26일
문의: 010-7157-0203

■ 10월 유아세례 간증



/ 아이: 김사랑 부: 김금식 모: 고새봄

사랑이를 낳고...

나에게는 오래된 기도제목이 하나 있다. 바로 엄마와의 관계회복에 대한 기도다. 성인이 된 이후 엄마와 잦은 다툼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보이지 않는 두꺼운 마음의 벽을 열심히 쌓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사랑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감사와 두려움으로 10달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이 너무 감사했다. 한편으로는 엄마와 관계가 좋은 않은 내가 과연 자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었다.

엄마는 내가 반항할 때마다 “너 같은 딸을 꼭 낳아서 키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엄마처럼 꼭 착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며 지지 않고 맞섰다.

나는 임신 이후 하나님께 순종적인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다. 아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면 집착하게 되니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 그 동안의 내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단

번에 깨달았다. 출산과 동시에 든 생각이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겠구나’였다. 하나님이 사랑이를 나와 엄마의 관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같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육아를 경험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사랑이를 키우면서 엄마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다. 사랑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 자라면 나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남편과 사랑이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이다. 사랑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세례 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사랑이가 이번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마음이 건강하고, 맑은 아이로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사랑이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 부부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 기도할 것이다.

■ 대전 일.하.세. 아카데미 간증



/ 홍석구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3기 일.하.세. 아카데미를 통해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동안 정말 일터에서 잘못 살았다”이다. 물론 신앙인으로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감사님들의 말씀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는지는 모르겠다. 직장에서 대립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일.하.세. 아카데미에서는 특히 같은 연배의 선배 조원들과 나눔 시간이 좋았다.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어쩌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었다. 토론시간이 너무 짧기만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재정관리, 술 문화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주시고, 답을 내리기보다 서로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강의내용이 실제적이라 정말 좋았다.

어느 조원님 말씀처럼 온누리교회이기에 이런 강좌가 개설되었고, 너무 늦게 생긴 것이 안타깝다. 어느덧 내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직장생활의 종반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더한 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직장생활을 실천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대전 온누리교회 일.하.세. 아카데미에 더 많은 직장인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직장인들이 되기를 당부한다.

대전 일.하.세. 아카데미 개강
일시: 11월 4일~11월 25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대전 온누리교회 비전홀
회비: 5만원
문의: 042-825-3642

멘토칼럼

권사칼럼

보석 같은 청년들



노지준 멘토
(허브 대학부)

지난해 말 대학부 순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나도 한 다락방의 멘토로 섬기게 되었다. 그 다락방의 다락방장과 순장들과 첫 번째 모임을 가진 날 저녁 한 다락방장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멘토님이 우리 다락방 멘토로 와 주신 게 사무치도록 감사합니다”

살면서 ‘사무치도록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조차 ‘사무치도록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기에 아직도 잊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고전 4:15).

대학부 멘토로 섬기면서 멘토링의 핵심은 가르침을 주거나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고, 공감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다. 품어주고, 공감해주시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춘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이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적혀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쩌면 아직 덜 익어서 생각과 행동이 즉각적인 청년들의 모습이 지나치게 신중한 인생 습관에 물들어버린 어른들의 눈에 버릇없게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제대로 익어가기 위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부림치는 대학생들의 순수한 도전과 열정, 순종에 오히려 고개 숙일 때가 많다.

내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청년은 지난 여름 남미로 아웃리치를 가려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비용을 마련하였다. 두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웃리치 비용의 3분의 2를 채웠다. 모자란 비용을 놓고 기도하다가 우연히 참가한 마라톤 대회에서 한정판 고급 러닝화를 경품으로 받게 되었다. 그 청년은 경품으로 받은 러닝화를 팔아서 나머지 비용을 충당했다. 그 청년도

유명 브랜드 한정판 러닝화를 신고 싶지 않았을까. 그 청년은 예상치도 못했던 경로로 아웃리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러운 간증으로 여겼다. 또 한 청년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

“멘토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첫 소산물 헌금을 드렸어요! 예전부터 돈을 벌게 되면 첫 소산물 헌금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많이 기도했는데 드디어 할 수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한 청년이 학교 채플 관련 공개토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기도를 부탁해왔다. 대부분 채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발언들일 텐데 그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주고 중보기도도 해줬다. 그날 저녁 그 청년에게서 문자가 왔다.

“멘토님, 발언했어요. 다른 학생들의 발언과 달리 제 발언은 박수를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발언했어요. 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녁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청년의 용기에 박수를 쳐 주었다.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청년들이 있음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 시대 청년들을 9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 외모, 건강을 포기)라고 하지만 주일마다 어김없이 세상 모임에 가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보고,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수시로 묻는 청년들이 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전보를 전해주는 청년들의 순전함이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하는 보석 같은 청년들이 나의 가슴을 벅차게 만든다. 세상 젊은이들이 절망과 포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은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애들아, 세상이 포기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지만 오늘도 다시 한 번 일어서자. 세상에서 분투하다 깨진 무릎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서 발을 디려보자. 나는 그런 너희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가슴 깊이 사랑한다.”



현월선 권사
(분당A공동체)

온누리교회 양육의 핵심 기둥은 일대일과 큐티이다. 그 중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의 중요성은 교회 초창기부터 강조한 터라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큐티가 내 삶에 정착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다.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큐티하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부분은 그런대로 정착이 됐지만 적용 부분도 어려웠다. 적용 없는 큐티는 삶의 변화가 없는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 무와 같다는 예수님의 지적이 나를 부담스럽게 했다. 큐티한 내용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지만 적용이 없는 날이 많았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다가 큐티를 매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다.

봉천동 신림중앙교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던 중이었다. 동반자가 내게 진지하게 “큐티가 무엇입니까?”라며 질문했다. 그는 큐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매우 흔해서 동반자의 말이 충격적이었다.

나는 동반자에게 <생명의 삶>을 교재로 주고 SNS로 큐티나눔을 시작했다. 동반자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큐티를 해야 한다고 결단하게 되었다. 억지로 십자가를 찢던 구레네 시몬처럼 말이다. 동반자를 위해 억지로라도 계속 큐티를 하고 묵상한 내용을

SNS에 올리고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매일 큐티를 하게 되었다.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요약한 다음 그 내용을 SNS에 올리고, 전송하고 동반자와 나누다보면 그 아침 2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비록 동반자를 위해 하게 된 큐티나눔이었지만 공동여했기에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대일사역 동반자들과 순식구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보내게 되었다. 그 인원이 40여 명이나 된다.

나는 신앙생활의 꽃은 ‘큐티’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묵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즐거움 중의 즐거움이고, 보물 중의 보물이다. 어느 날은 위로함으로, 어느 날은 무서운 경고로, 또 어느 날은 약속의 소망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이처럼 새벽 큐티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다. 큐티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창구이자 이웃과의 소통창구이다. 만약에 큐티가 없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의 무기가 큐티임을 깨닫게 하셨다. 매일 큐티한 덕분에 일대일 대외사역에서도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동반자와 큐티를 주고받음으로써 친밀감도 더욱 풍성해졌다.

한 손엔 큐티, 한 손엔 일대일을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복음으로 통일이되는 그날, 평양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도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를 복음의 무기로 주신 온누리교회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사역칼럼

마포공동체와 산마루교회



김성철 집사
(마포공동체)

노숙인을 섬기고 있는 산마루교회와 마포공동체가 협력하게 된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마포공동체는 산마루교회가 섬기는 해맞이대학, 서울역 광장 청소, 노숙인 목욕시설 건립을 위한 자선음악회 후원, 사랑의 농장 사역 등을 섬겨왔다.

산마루교회의 해맞이대학은 노숙인들의 영성과 인성의 변화와 성숙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노숙인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마포공동체는 매주 화요일 해맞이대학에 참가하는 노숙인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제공하고,

저녁식사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섬기고 있다.

서울역 광장 청소는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다. 이른 새벽부터 노숙인들과 함께 광장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로 뜨끈한 육개장을 대접해 드리고 있다.

사랑의 농장 퇴비 나르기는 아마도 가장 힘든 봉사일 것이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30일 토요일이었다. 마포공동체 식구들이 아침부터 사랑의 농장이 있는 종로구 부암동 계곡으로 모여들었다. 농장에서 사용할 퇴비를 나르기 위해서였다. 언덕 아래에서 언덕 위로 옮겨야 할 퇴비는 모두 600포대였다. 한 포대에 20kg, 이동 거리는 좁은 오르막길로 약 200m였다. 몇 포대를 나르고 나니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힘든 노동을 해보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이주연 목사님은 거뜬히 퇴비포대를

메고 앞장서서 나르고 계셨다. 목사님의 목에는 포대가 터져서 나온 퇴비찌꺼기가 묻어 있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앞장 서는 리더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할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앞장서실 때 제자들이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아침 일찍 시작된 퇴비 나르기 봉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성도들의 몸은 지독한 퇴비 냄새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힘든 퇴비 나르기 봉사를 끝까지 섬겨주셨다.

힘든 노동을 기쁨으로 섬겨준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퇴비 나르기를 통해 선한 마음으로 묵치고 힘든 짐을 함께 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렸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주연 목사님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한마음으로 땀 흘리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저와 몇 사람이 퇴비를 나르던 때를 생각하면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 문자메시지에 그날의 모든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오는 11월 11일,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가 함께하는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이 열린다. 나는 벌써부터 그날이 기대된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을 통해서 노숙인 목욕 팔레방과 자활공동체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일시: 11월 11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장소: 한강시민공원
문의: 02-3215-3726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선을 위한 고난

그래서 선을 향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15~16절).

억울한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런 악한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일평생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함과 소망으로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악과 고난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 이면에는 사탄의 끊임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고난을 일으킵니다. 욕기는 사탄이 일으킨 고난을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책임입니다. 욕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꺾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는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욕이 그래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유익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은혜

욥 차원의 고난이 있고,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적당히 타협한 만큼의 고난이 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유익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고난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고난에 참여할 때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18절).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영광과 능력과 은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선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고난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

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선과 의를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부활의 승리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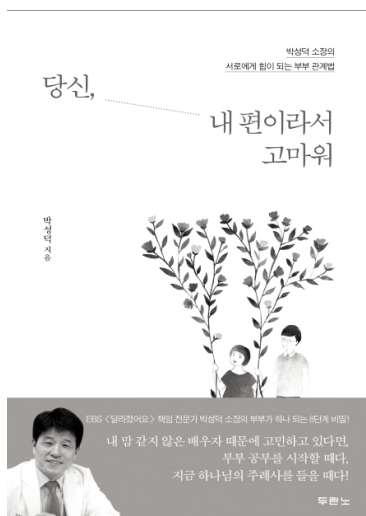
“이제 묻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21절).

선을 위한 고난은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을 위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선한 양심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해 갑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선하게 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위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뒤따르는 아무런 고난과 위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고난을 자초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내가 처한 삶 속에서 억울한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에 참여하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위한 고난을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함으로 복되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너를 향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이유 없는 행복은 없다



〈당신, 내 편이라서 고마워〉
박성덕 저 | 두란노 | 13,000원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건수가 10만 7,300건이나 된다.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였다. 한 번의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이 부부의 신뢰를 깨고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당신, 내 편이라서 고마워〉의 저자 박성덕 소장은 2천 쌍이 넘는 부부를 상담하고 오랜 시간 부부의 갈등을 연구하면서 그 이유가 ‘부부의 연합 실패’라고 판단했다.

박성덕 소장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주례사로 ‘연합’을 말씀하셨다고 말한다. 때문에 부부가 연합하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는 저자가 실제로 만난 부부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부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있다. 핵심은 남편이 노력하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아내가 다가가면 남편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이유 없는 행복은 없다. 서로를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예비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이혼 위기의 부부 등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무엇을 기억하고 돌아켜야 할까



오늘 만나는 종교개혁의 현장
종교개혁 길 위를 걷다
국인일보 기자
김성영·고성삼·박용규·서대천·주도홍 기음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한국에 종교개혁의 현장들을 돌아서
국민일보가 기획하고 전문 학자와 목회자가 직접 취재한
종교개혁 현장에서 한국교회의 내일을 찾는다
두란노

〈종교개혁 길 위를 걷다〉
김성영, 고성삼, 박용규, 서대천, 주
도홍 저 | 두란노 | 17,000원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며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루터의 그 외침 이후 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종교개혁 길 위를 걷다〉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길라잡이가 되어준다. 〈종교개혁 길 위를 걷다〉는 신학자와 목회자로 구성된 다섯 명의 필자(김성영 목사, 고성삼 목사, 박용규 교수, 서대천 목사, 주도홍 교수)가 종교개혁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서 기록한 책이다.

종교개혁 발상지인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와 영국, 미국과 한국 곳곳을 답사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한국 교회에 이르렀는지 500년 동안의 역사를 추적했다. 이 책에는 전문적인 글과 함께 현장감이 살아있는 사진도 다수 실려 있다. 마치 종교개혁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츠빙글리, 존 칼빈과 요한 웨슬리, 영국의 종교개혁자들, 미국과 한국 선교의 뿌리, 한국 교회의 신앙까지 종교개혁의 모든 발자취가 담겨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무엇을 향해 돌아켜야 할까. 〈종교개혁 길 위를 걷다〉에 그 답이 있다.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뎀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페르시아어예배 13:30 본관5층 미션다락방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 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승우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 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 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8-9

온누리선교재단 계약직원 채용공고

모집: 양재 커피숍 직원, 양재 한식당 조리

원, 양재 건축/인테리어 담당자, 양지

기관담당 직원

문의: 총무팀(02-3215-3102)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스타트리

아카데미) 태권도 강사 채용공고

자격: 태권도 관련 전공자

모집: 10월 30일~11월 15일

접수: onnurim911@gmail.com

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자격

증서본, 주민등록등본

샘물중등학교 교직원 채용

모집: 국어교사, (책임)연구원(11월 6일까지

지), 기획담당(11월 1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www.smca.or.kr)

은혜샘물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채용

모집: 초등담임교사(11월 20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은혜샘물교회 홈페이지

참조(www.osmcc.or.kr)

OSOM28기 장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훈련: 2018년 2월 19일~6월 9일(16주간)

접수: 2018년 1월 22일 까지

신청: www.visionvillage.org

문의: 031-331-8182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 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 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 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 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 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 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CGNTV

PAUSE

퍼즈

바쁜 삶을 잠시 '일시정지' 하세요
모바일 콘텐츠 'PAUSE(퍼즈)'

SNS에서 만나는 성경말씀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1분의 힐링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의 곳곳에서 들려주는 성경말씀 콘텐츠로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쉼과 회복을 경험하세요

'퍼즈'
다시보기



CGNTV KOREA KNOCK

페이스북 CGNTV Korea(facebook.com/cgntv) 또는
KNOCK(facebook.com/cgntv.knock)페이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